

군산형 라이즈사업 성공 추진 맞손

강임준 시장, 명사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호응’
국립군산대와 협력해 지역 혁신·정주형 인재 양성 다짐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한 토크콘서트에서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해 군산형 라이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3일 국립군산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는 자율전공학부의 대담 형식 교양교과목으로, 이장호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재학생, 군산 시민이 참석해 강담을 가독 매웠다.

강임준 시장은 특강에서 자신의 청년 시절 경험담과 시장으로서 정책 추

진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며, 라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한 군산시의 비전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본이자 핵심과제”라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산업 발전, 지역 성장, 정주 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는 기존의 낡은 산업구 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신산업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미래 핵심산업

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 철도, 공항의 트라이포트 입지를 활용해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 개발역량이 뛰어난 지역 대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현재 국립군산대학교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고,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시와 국립군산대가 라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또한, 강 시장은 국립군산대학교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새만금의 중심대학인 국립군산대학교가 올해 글로벌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장호 총장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글로벌대학이 되기 위해 우리 대학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립군산대학교와 군산시가 힘을 합쳐 군산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 도시를 만들 타이밍이다. 함께 힘차게 점프업해보자”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합니다’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총학생회, ‘GBCH’ 챌린지 동참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지난 13일, 임주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 열기에 힘을 보탤다.

‘GBCH’ 챌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지원하는 범도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앞 글자를 따서 명명되었다. 현재 전북특지도 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장호 총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호원대 강희성 총

장의 추천을받아 이번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었다. 이총장은 챌린지 다음 참가자로 군산제일고 이정우 교장과 군산여고 황상규 교장을 자목하며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장호 총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립군산대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챌린지 소식을 대학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시하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업인에 최대 3억 원 융자 지원

시3%·농업인2.5%...영세농·청년·여성농업인 등 우대혜택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접수... 최대 8년·청년농 10년 지원

익산시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시설과 장비,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지역농·축·원예농협과 동진강축협, 익산산립조합 등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억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8년이며, 청년농업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

다. 사료·입식 등 특정 항목의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다.

이번 사업은 경종·원예·가공·가축·특용작물·화훼 등 농·림·축산업 전반에 걸쳐 시설과 장비·농기계 구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농지·자동차 구입이나 비료·농약·유류 등 소모성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5.5%로 설정됐다. 이 중 시가 3%를 지원하고 농업인이 2.5%를 부담한다.

특히 영세농·청년농업인·여성농업인·귀농인 등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 보다 높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에 60만원

군산시가 난방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과 지역 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억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0대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주택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당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저소득층·취약계층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고, 문의 사항은 시 기후환경과 기후대응계(☎063-454-3393)로 연락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삼양식품과 상생 발전 위한 협력 모색

삼양라면 익산공장 방문

익산시가 55년째 익산에서 굳건하게 활동 중인 삼양식품(주)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모현동 삼양라면 익산공장을 방문해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배석희 경제관광국장과 양경진 건설국장이 참석했다. 시는 삼양식품(주) 임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삼양식품 측은 익산공장 시설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공장 이전은 없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삼양식품 공장 주변에 공원과 공동주택이 조성되면서 △공장-공원 간 경계 담 설치 △친환경 보일러 교체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의 환경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환교한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량 확대를 위해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1963년 국내 최초의 라면을 출시한

삼양식품(주)은 1971년 익산에 본격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꾸준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삼양식품의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삼양이 익산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지역 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 창업주인 전종운 명예회장이 연고도 없는 익산에 공장을 세운 이유는 의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6.25 전쟁 피난 당시 전 명예회장의 끼니를 익산 사람들이 보살펴줬던 것을 잊지 않고, 라면 열풍이 불던 1970년 익산에 공장을 세워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도운 것이다. 이어 55년이 지난 지금도 삼양 익산 공장은 지역을 위한 다양한 나눔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만원으로 농촌 체험한다’

익산 주말 가족농장 모집

익산시가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6일까지 ‘주말 가족농장’에 참여할 282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말 가족농장’은 시민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제공되는 농장 면적은 가구당 16.5~33㎡ 내외이며, 연간 임차료는 1~2만 원으로 저렴하게 운영된다.

2월 14일 이후 신규 전입한 대원이 있는 가구는 인구 유입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임차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분양은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다만 이번 모집에서는 신규 전입 가구,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한해 ‘무추첨 특별분양’이 진행된다. 주말 가족농장은 익산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전자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859-497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1차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 개최

군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1차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지난 14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는 군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주요 관광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선정된 관광전문가, 시의원, 언론인 등 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2025 머물고 싶은 다채로운 매력으로 관광도시’를 목표로 △K-관광길 브랜드 개발 및 홍보용역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용역 보고에 따른 자문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최대한 세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